

호남고속철 경제성 입증...3차 철도망 구축계획 포함 시급

지난 29일 밤 11시 8분 충북 오송~광주 승정 호남고속철도 객차 안은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승객이 가득했다. '경제성'을 내세우며 호남에 대한 철도 투자를 차일피일 미루었던 정부 논리와는 상반된 결과다. 2시간 내에 수도권을 연결하는 호남고속철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 관광·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를 촉진하며 지역 발전의 엔진으로 거듭나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1년간 승객은 950만1000여명으로 개통 1년 전인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승객 669만7000여명에 비해 41.9% 급증했다. 용산역~광주승정역이 1시간 47분으로 개통 전에 비해 무려 59분, 용산역~목포역 2시간 29분으로 53분, 용산역~여수엑스포역 2시간 57분으로 36분을 각각 단축시킨 결과다.



2단계 개통 서둘러야

호남고속철도 1단계(용산~광주승정) 개통은 정부, 광주시·전남도, 각계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초월하는 성과를 낳고 있다. 예약 없는 주중에도 승차권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승객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이러한 고속철의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2단계(광주승정~목포) 공사를 서두르면서 한편으로는 미흡한 철도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 2단계로 통해 전남 서부권의 관광 수요를 창출하면서 호남권의 주요 역을 연결하는 노선의 고속화로 지역 내외의 '교류'를 증대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3차

전남도, 광주승정~나주~무안공항~목포 노선 정부 설득중

목포~제주 해저터널·전라선 고속철 등 인프라 개선도 촉구

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2016~2025)에서 호남권 철도사업이 줄줄이 누락되고 무안공항 경유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는 등 난관은 여전하다.

◇목포까지 2020년 고속철 완공 가능하나=전남도는 지난 2006년 국토부가 광주승정~목포(56.0km, 사업비 2조6616억원)를 포함하는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을 고시한 이후 11년째 무안공항 경유를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2012년 잠시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변경안(72.2km, 3조1536억원)을 고시했으나, 빛가람혁신도시가 들어선 나주 경유 문제가 나오면서 다시 노선 논쟁이 일었고, 이후 무안공항 지선 검토, 재협

의 등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결국 전남도와 국토부, 기재부 등은 광주승정~고막원(26.4km)을 우선 추진하고 남은 구간(고막원~목포)은 지속적인 협의 후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전남도는 광주승정~나주~무안공항~목포(77.6km, 2조4731억원) 노선을 관철하기 위해 정부부처를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간이 다소 지체되더라도 수해지역 확대, 무안공항 기성 확충 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광주승정~고막원 구간은 오는 10월 공사에 착공, 2018년 준공한 뒤 고막원~목포는 노선을 정한 뒤 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문제는 개통 시기다. 지난해 600억원, 올해 160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으며, 계획대로 2단계가 개통되기 위해서는 향후 4년간 2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호남고속철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관광객 증가, 수도권 인구의 소비 증대 등의 혜택이 전남 서부권보다 동부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난 만큼 2단계 개통이 전남 서부권에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한 여수의 카드 매출은 2014년 대비 수도권 인구의 소비 가했으나 목표는 오히려 11.4%에서 11.3%로 관측하는 등 전남 서부권은 고속철의 수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흡한 호남 철도 인프라 '걸림돌'=전남도가 호남고속철 2단계 완공만큼 중점을 두는 것은 호남권역 내 철도 인프라

의 확충이다. 주요 역과 관광지 인근 역과의 연계로 통해 호남권역 내에 진입한 외지인들의 신속한 지역 내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국토교통부에 제3차 계획에서 누락된 목포~제주해저터널(16조8000억원),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건설, 군산~목포 서해안철도(3조5000억원) 등을 포함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선 서울~제주 해저고속철도의 경우 서울과 제주에 편중된 관광객을 남부지역에 분산시킴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기상악화 등에 따른 제주공황의 한계를 보완해 제주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전남도의 주장이다.

영남·충청권에 비해 철도 인프라가 열악하고 최근 전남 동부권의 관광 수요가 급증하는만큼 전라선 고속철도와 군산~목포 서해안철도의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상무소각장 철거되나

광주시, 이달 설문조사 뒤 활용방안 확정

폐쇄를 앞두고 있는 광주시 서구 상무소각장 주민들은 소각장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오는 11월 폐쇄예정인 상무소각장 건물을 철거한 후 그 부지를 활용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광주시는 "4월 중순께 상무소각장 인근 주민과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지난 31일 밝혔다. 시는 설문결과와 현재 진행중인 '상무소각장 폐쇄후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 성과를 토대로 최종 활용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결과는 9월에 제출된다. 설문조사에는 상무소각장 철거를 전제

로 그 활용방안을 묻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사실상 철거를 기정 사실화하는 내용이다. 시 관계자는 "상무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수였다"며 "전문가들도 보존 가치가 높은 건물이라니라는 진단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화력으로 쓰레기를 소각처리 했던 시설이어서 건물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소각장 활용방안의 대안적으로 광

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을 조성하기로 정했다. 소각장 인근 주민 외에도 시민들을 설문조사에 포함시키는 이유다. 그동안 '협오시설' 주변에서 피해를 봤던 상무소각장 주민들의 고통도 감안하지만, 전체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 상무지구 주민들은 폐쇄되는 광주 상무소각장 부지에 문화복지타운을 건립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풍력발전시설 주변 주민들 수면장애·어지럼증 첫 입증

전남도, 영암·신안 15곳 역학조사

전남지역 풍력발전시설 주변 주민들이 수면장애, 이명, 어지럼증 등의 건강상 이상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날 29일부터 이달 23일까지 공무원과 의학전문가 등 25명을 투입해 풍력발전시설 피해를 호소하는 영암군 11개 마을(주민 218명), 신안군 4개 마을(주민 181명)의 주민 3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건강실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주민 상당수가 건강상 불편을 호소했다.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고 지역 간, 마을 간 차이는 있지만, 풍력발전시설 인근 지역 주민과 비인근지역을 비교할 때 인근 지역 주민들이 수면장애, 이명, 어지럼증, 가슴이 나 배 부위의 압박감 등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조사팀은 ▲생리적인 추가 조사 ▲장기간 물리적 환경조사 ▲인과관계 증명 ▲500~1000m 내 주민 집중 연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분석 보고서에서 조사팀은 "풍력발전시설로 인한 소음에 대해 가까이 있

는 사람뿐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소음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일부 주민은 풍력발전소 그림자가 집안 내부로 비쳐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강상의 불편 호소는 신안군보다 영암군 주민들이 더 많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영암군 주민들은 풍력발전시설에서 550m가량 떨어져 있고, 신안군 주민들은 그보다 더 멀리 떨어져 생활한다"며 "풍력발전시설에 가까운 영암군 주민들의 소음 불편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풍력발전시설 주변 주민들이 소음 피해 등을 호소한 경우는 많았으나 행정기관이 직접 피해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도내에는 현재 풍력발전 시설 9곳이 운영 중이며, 33곳에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과거 풍력발전 설치 지역 주민들은 소음, 진동, 저주파 등 환경피해와 가족 유산, 자산 등 생업피해, 불면증,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피해를 호소해왔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승정·목포·나주역서

호남고속철 개통 1주년 행사

코레일 광주본부는 호남고속철도 개통 1주년을 맞아 1일과 2일 광주승정·목포·나주역에서 고객 감사 행사를 연다.

지난 31일 코레일에 따르면 광주승정역에서는 1일 오후 광주시립교향악단, 2일 광산구청 어머니 합창단의 공연을 3층 맞이방에서 잇따라 열린다.

2일 오전 7시15분 광주승정역을 출발해 용산으로 향하는 열차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떡과 차를 대접하는 행사가 마련되며 광주승정역과 나주·목포역 일부 매장들도 이날 하루동안 음료 등을 10% 할인 판매한다.

지난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실시한 '추억나무 여행 메시지 달기' 이벤트의 추첨 역시 2일 오전에 실시한다. 코레일은 총 12명을 선별해 꽃다발과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김현식 코레일 광주본부장은 "호남고속철도 개통 1주년을 맞아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당신의 광장! 젊음의 광장! U-square

U-square점

YONAMJA STEAK/PASTA/PIZZA/BEER

STEAK ₩12,500~
PASTA ₩11,900~
PILAF ₩7,900~
PIZZA ₩11,600~
SALAD ₩9,900~

100% Handmade Pizza

☎062)673-797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2016년 상반기 채용공고

(주)구산건설에서는 진정한 기술력을 습득하고자 하는 신일 직원과, 기술력과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일정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인재에 대해서 성별에 차별 없이 최고의 대우를 하고자 합니다. 단, 이력서나 제출해 볼 생각으로 지원하시는 사람은 사절입니다.

1.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성별무관)

| 근무예정지 | 모집부문 | 모집인원 | | 경력직 자격요건 |
|-------|------------|------|------|---------------|
| | | 신입사원 | 경력사원 | |
| 본사 | 건축팀 | 0명 | 0명 | 경력 15년 이상/사무직 |
| | 공무팀 | 0명 | 0명 | 경력 10년 이상/사무직 |
| | 법무팀 | 0명 | 0명 | 법률 10년 이상/사무직 |
| | 인원관리팀 | 0명 | 0명 | 경력 5년 이상 |
| 현장 | 광주, 목포, 기타 | 건축사무 | 0명 | 0명 |
| | 건축공무 | 0명 | 0명 | 0명 |

2. 전형절차 및 제출서류

▷ 전형절차
1차 : 서류전형
2차 : 필기시험 (경력직에 한함)
3차 : 면접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 우대사항
학사학위이상 소지자
건축기사 및 안전관리 자격증 소지자
시외근무 가능자
일정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인재
법무팀 지원자-사법고시 합격자 또는 로스쿨 이수자

3. 채용조건

▷ 정규직 채용
▷ 복리후생
4대 보험 가입/직원차량 장학금 지급/시외 근무수당 별도지급
▷ 근무시간
본사 : 09:00-18:00 (월~금)
현장 : 08:00-17:00 (탄력근무제 적용)

4. 접수기간 및 방법

▷ 마감일 : 2016년 4월 7일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홈페이지 온라인접수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로 144 (용봉동), 2층)
▷ 문의사항 : (주)구산건설(062-571-5070)
▷ 홈페이지 : http://www.goosan1.co.kr

(주)구산건설

봄(그림)을 선물하세요

착한가격(20~90만원)으로 유명 작품 한점 소장하세요

특별한날에 (개업, 승진, 이사, 기념일 등) 멋진 그림 한점 선물하신다면 ~

- 광주 전 지역 배달가능
- 유명 작가분 그림도 판매 합니다.

문화갤러리

Open | Am 10 ~ Pm 6시 (일요일 휴무)

010-6233-1950